

“변화 · 혁신으로 문화 · 관광 견인”

전북문화관광재단, 비전 선포... 4대 전략목표 · 12대 실행과제 제시

“줄탁동시의 자세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변화와 혁신으로 문화 · 관광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운영 4기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 경영에 필요한 핵심가치는 창의, 변화, 협력이라며, 문화관광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가치인 창의와,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내외적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가치인 변화, 그리고 다양한 고객과 혁신하기 위한 가치인 협력으로서 재단은 도전적인 정신으로 지역과 함께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전략목표와 12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목표로는 △전북형 예술지원 체계 구축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복지 강화 △글로벌 관광거점 발굴·육성 △혁신과 ESG 경영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해 예술, 문화, 관광, 경영 부문별 3개씩 12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경운 대표이사는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분야별 중점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은 내외부 협력과 연대 강화, 안정적 경영으로 기관 성장



전북문화관광재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변화와 혁신으로 문화 · 관광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며, 운영 4기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도모 △문화는 지역예술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주력 △관광은 글로벌 관광거점 발굴·육성 등이다.

먼저, 경영차원에서 효율적인 경영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직원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시스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예술인과 기관을 연계해 전북 맞춤형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예술인의 문화행정 일자리 기회도 제공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되는 ‘전북형 미술시장 활성화 사업’과

‘청년인턴형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은 전북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관광분야로는 문화예술과 관광을 결합한 ‘전북 웰니스(치유관광)’와 ‘전북형 위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는 전라북도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2023년은 재단의 변화와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서, 비전을 기반으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 4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나아가 지역에 공헌하는 문화관광재단이 되는 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일제, 광한루 재관소 · 감옥으로 사용”

남원 향토사학자 김용근씨, 침탈 사용 흔적 자료 확인

조선백성의 문화적 결집체였던 광한루를 재관소와 감옥으로 활용한 일제의 만행이 밝혀졌다.

남원의 향토사학자인 김용근씨는 광한루 600년의 구전자료를 수집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광한루를 재관소와 감옥으로 침탈 사용한 흔적 자료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확인되었던 일제의 광한루 재관소와 감옥의 자료는 사진엽서와 남원 법원의 역사 그리고 광한루 돌기둥의 감옥 설치 흔적이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자료는 광한루 마루 아랫면의 관재와 돌기둥 보의 관재에 적힌 글씨와 돌기둥에 써놓은 암자서 그리고 광한루 감옥에 투옥된 수형자의 수형인 명부다.

일제가 감옥으로 사용했던 광한루 돌기둥의 나무 보와 마루 관재 뒷면에서 확인된 먹물로 쓴 한문의 글자는 옥십갑자의 연호와 사람의 이름 그리고 조선 말기의 관직과 갑자년 12월 전라도 땅이라는 글과 부사, 영리, 통인, 형방의 관직명을 포함하여 무인년(1878) 1월과 임오년(1882)의 표기와 박귀환, 최승욱 같은 수많은 이름들이다.

일제가 광한루를 재관소와 감옥으로 사용한 시기는 1910년부터 1928년까지 18년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1878년과 1882년의 표기가 광한루 마루관과 돌기둥의 나무 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 광한루 감옥을 만들 때 어디에서 가져온 관재임이 분명해 보이고 그곳이 그동안 구전오만 전해오던 남원성 안에 있던 원형감옥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는 조선식 원형 감옥을 일본식 감옥으로 만들기 위해 남원성안에 있던 개과천선 우주관을 가진 원형감옥을 해체하여 그 자재로 광한루 감옥을 만들었고 그 실체가 지금 광한루 마루 뒷면과 돌 기둥 보에 기록된 한자의 묵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한루 기둥에 새겨져 있는 네 개의 글자인 石 廷(石)에서도 광한루 재관소와 감옥의 침탈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광한루 전면 좌측 네 번째 중앙 돌기둥에 새겨진 석정화전의 글씨는 石(돌석), 廷(재관정, 관아정) 化(교화 시



(사진=지리산문화지원연구소 제공)

필 화), 舍(갯출 전)으로 이는 재관과 교화를 갖춘 돌로 된 완전한 관청이라는 말로 해석했다.

그 광한루 재관소와 감옥을 일러 일제는 석정화전이라고 불렀고 그 말은 조선백성을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기 위한 재관과 교화의 감옥을 갖춘 돌로 된 완전한 관청이라는 뜻으로 일제는 그 글자를 재관소와 감옥을 가진 광한루 정면의 돌기둥에 새기고 일본식 침사의 이름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광한루 감옥에 투옥되었던 남원권번의 소리선생이었던 김경문 명칭의 수형인명부에서도 광한루 감옥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역형의 수감내용과 형명을 확인해 보면 구점으로 전해오던 소리꾼들의 독립군과의 정보망 색출을 위한 일제의 공작으로 아편소지의 누명을 씌워 투옥된 점도 확인 됐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경찰청 갤러리 ‘들꽃을 새기다’

무궁화 아트홀서 24일까지 판화가 황금화 작가 작품전 · 감사장 전달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은 전북청 무궁화아트홀에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궁화 아트홀에 작품을 전시하는 황금화 작가에게 감사장을 7일 전달했다.

전북경찰청(청장 강형수)은 전북청 무궁화아트홀에서 지역사회 문화예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궁화 아트홀에 작품을 전시(‘들꽃을 새기다’, 1.30 ~ 2.24)하는 황금화 작가에게 감사장을 7일 전달했다.

이번 초대작가인 황금화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를 전공하고 전북 현대관화협회 회원, 7대 광역시 관화교류전 등 다수 전시경력과,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라북도미술대전 및 한국창작미술대전에서 입상하는 등 다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전북 현대관화협회 회원, 세계 미술문화교류협회 회원 등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다.

황금화 작가는 토속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들녘에서 마주하는 ‘꽃과 자연’을 캔버스에 새김과 찍음으로써 새로운 기법을 구상하여 표현하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민과 함께 문화적 공감을 이루고자 현재, 본관 1층 갤러리 ‘무궁화아트홀’에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오고 있으며, 내방하는 도민들과 소통의 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 전북문화관광재단, 지역특화 콘텐츠 협력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지역 특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 추진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진흥원과 재단이 보유한 자원 및 역량을 하나로 뭉쳐, 전라북도 만의 특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연계·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은 △각 기관 소개 및 관련 자료 정보 공유 △협력사업 제안 발표 △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한 논의 △전라북도 특화 문화관광콘텐츠의 추진방향 설정 등이다.

진흥원과 재단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프리 연계 공연 △청년 예술가 콘텐츠코리아랩 네트워킹 행사 △전라북도 웹툰 문화의 날 △디지털 미디어 연계 사업 총 4개의 협력 사업을 구체화했다.

최용석 진흥원장은 “두 기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전라북도의 유·무형 문화자원 및 관광명소를 콘텐츠화 시키고, 관광객 유치와 전북 콘텐츠 스타기업 육성을 발판으로 전북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